대구일보

사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기술 보유 기업 8개사 입주한다

포항시와 MOU 체결...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 451억 원 투자

8개사 중 7개사가 포항서 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 시작

기사 입력 : 2020-08-26 14:01:37 최종 수정 : 2020-08-26 14:44 기자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기술 보유 기업 8개사가 입주할 전망이다.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만6천848㎡ 규모의 부지에 총 4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다.

이날 MOU 체결 8개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화이바이오메드를 제외한 7개사가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다.

에이엔폴리, 원소프트다임, 바이오컴은 포스텍, 이너센서, 이브이에스, 휴비즈아이씨티는 포항TP, 아이언박스는 국민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회사 규모를 키웠다.

포항시는 이날 MOU를 계기로 외지 기업체 유치와 함께 지역 내 R&D 기반의 유망강소기업의 탈 포항을 막는데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벤처·중소기업들이 제품 양산을 위한 공장 건립 단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항시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46만㎡ 부지에 바이오, 에너지, 나노, 주거, 글로벌 비즈니스 등 5가지 혁신성장 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경북도 제2청사인 환동해지역본부의 본격적인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식물백신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한 '바이오앱'과 포항세명기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한성재단', 기술혁신 벤처기업인 'HMT' 등이 투자를 확정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기자